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4주년 영상 기념식 및 세미나

팬데믹 시대의 위기 극복과 새로움을 향한 도전

2020. 09. 17(목) 14:00

한선재단 유튜브(온라인) 채널, 영상으로 게재



목 차

1. 모시는 글

2. 창립 14주년 기념 인사말 …… 박재완 이사장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전망과 과제 세미나

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 미래

‣ 문명의 전환과 비트시대

: 포스트코로나가 유입할 가상문명세계

……이대영 중앙대학교 교수

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 여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양성평등

……손숙미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

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 복지

‣ 갈등구조해소와 자조·자립의 복지시스템 구축

……김원식 조화사회연구회장

모시는 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14년의 성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선재단은 2006년 창립 이후 공동체자유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부민덕국의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화두와 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사회적 갈등의 와중에 코로나까지 겹쳐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발 경제 위축이 우리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선재단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와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선재단이 지난 14년 동안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선재단이 주춤할 때 여러분의 채찍이 방향타가 되었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이 전진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한선재단은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연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는 9월 17일,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창립 14주년 기념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선재단을 후원하고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9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 재 완**

식 순

1부 창립 14주년 기념식

1. 인사말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 창립 14주년 축하영상 한선에 바란다

2부 기념 세미나

1.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미래
   - 이대영 중앙대학교 교수
2.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여성
   - 손숙미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
3.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복지
   -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문의 · 전화 : 02-2275-8391 · 메일 : hansun@hansun.org

< 인사말 >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4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늘 행사처럼 대면 활동 대신에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비접촉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고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뉴노멀은 종전의 일상、관행、표준、균형과 다르다는 뜻이지, 그것이 곧 바람직한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일보한 뉴노멀도 있지만, 회피해야 할 '뉴 애브노멀'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할 뉴노멀은 앞당기고 그에 적응하는 한편, '뉴 애브노멀'을 차단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위공(爲公) 박세일 선생께서 주창하신 공동체자유주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두 가지 측면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대면 활동 위축이 공동체 정신의 퇴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로 빚어진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최근 나라 전반에 걸쳐 자유가 위축되고 공동체 가치가 퇴색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자유주의가 더 힘을 잃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특히 살기 힘들어진 서민의 분노를 응축해서 그에 올라타는 인기영합주의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봐도 심각한 군사、경제 위기 때엔 거의 어김없이 인기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이끄는 '큰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아 편협한 민족주의와 집단주의가 발호했고, 각자도생에 바빠 자치와 공민 의식이 엷어졌습니다. 개인의 자율、노력과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인기영합주의의 특징은 서민과 엘리트로 편 가르기, 다원주의 배격, 견제 무력화, 반세계화, 난제에 대한 해법의 지나친 단순화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우

리는 이런 인기영합주의에 취약합니다. 남과 비교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성향이 유달리 강한 탓입니다. 선동과 상징 조작에도 잘 휘둘립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인기영합주의가 '뉴 애브노멀'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붕당 싸움과 유유상종(類類相從)의 '종족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규범적 접근과 원리ㆍ극단주의를 순화ㆍ차단하고, 개방과 소통의 협치를 실천해 국민통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견해가 다른 상대와 최소공배수를 찾아 그 동심원을 넓히고 차선을 수용하는 '덧셈 정치'가 정착돼야 합니다.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자각과 헌신이 절실합니다. 한선재단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다행히 한선재단 출신인 박수영 전 대표, 윤창현 전 정책위의장, 전주혜 전 정치개혁연구회장과 구자근 한국도덕운동 경북협회장께서 제21대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네 분 국회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재단이 지향하는 공동체 자유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떠나신 분들의 뒤를 이어 중책을 기꺼이 맡아주신 강성진 정책위의장(겸 국가전략연구회장), 김형준 정치개혁연구회장, 그리고 신설된 보건의료정책연구회 박종훈 회장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아가 한선재단이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군자금을 쾌척해주신 수많은 기부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큰절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이 없었다면, 재단은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세미나를 비롯한 행사 때마다 자리를 빛내주신 무명 용사들의 은혜도 잊지 않겠습니다. 재단 행사를 널리 알려주신 언론인들의 숨은 노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7.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완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미래>

문명의 전환과 비트시대

포스트코로나가 유입할 가상문명세계

이대영 중앙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저는 과감하게 포스트코로나의 시대를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본고는 ‘비트시대’가 무엇인지 말할 겁니다. ‘비트’는 0과 1의 정보이며 부피와 질량을 가진 물질로 이루어진 아톰(atom)의 삶과 대별되는 개념입니다.

비트시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첫째, ‘비트라이프(bit life)’[1]입니다. 둘째, ‘비트닉스의 문명’입니다. 셋째, 비트닉스 문명의 완결판으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시스템 즉 ‘비티아(Bitia) 네트국가’입니다.

Ⅱ. 본 론

1. 아톰(atom)시대에서 비트(bit)시대로

과거 인류의 삶이 물질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비물질의 세계 즉 정보의 세계인 비트의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곧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문명사는 크게 다섯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 시기, 즉 인류의 5차 문명기를 ‘기술혁명의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즉, 5차 문명기가 비트시대인데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의 중첩’, 그리고 ‘네트국가의 출현’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1) 비트라이프는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 속 공간과 같은 비트공간에서의 삶을 말한다.

특히 ‘생각하는 로봇’이 등장하면서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재구성 될 겁니다. 나노로봇 수십억 개가 몸과 뇌의 혈류를 타고 흐르며 DNA오류를 수정하는 등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기억공유기로 상대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고 인공자궁으로 복제하듯 생명이 탄생할 것입니다. 가상현실 시스템이 일상화되어 가상공간 속 네트워크 국가인 비트공화국도 출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비트문명이라 칭하는 겁니다. 향후 30년, 즉 2050년경에는 완벽한 비트문명의 전이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2. 비트라이프 - 두 번의 삶

비트문명이 시작되면 누구든 현실세계에서 한 번, 가상세계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필자는 이를 ‘비트라이프’라고 부릅니다.

2003년 출시한 미국의 커뮤니티 시뮬레이션 게임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공간에서의 삶입니다. AI에 의해 죽은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전자초상화도 등장할 겁니다. 책장을 덮듯 전원을 꺼버리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비트라이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비트라이프는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인간이 존재하는 한 현실세계와 함께 영속합니다. 훗날에는 스스로 존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트라이프는 보이지만 만져질 수 없는 삶이며, 현실의 중력의 법칙이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지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살아갈 대행인격체인 ‘페르소나’라는 존재를 사용합니다. 나의 페르소나는 비트라이프 세계에서 홀로 움직여 다닐 것이며 자신이 겪은 방대한 데이터를 다시 축적하고 연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나’와 비트의 ‘페르소나’ 이것이 비트라이프입니다.

3. 비트닉스 - 기계와 인간의 혼성과 공존

비트닉스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의 인간상을 말합니다. 기계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기계가 될 수도 있는 세상이 곧 비트닉스들의 세상입니다.

기계는 3단계로 발전해 왔는데 바로 3단계 기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기계’로서의 삶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공존이 포스트코로나의 화두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며 종족을 번식하고 인간과 어울려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네 번째 불연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와 우주가 따로 놀았던 시절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와 우주를 연결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단절되었던 것을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 연결했으며,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프로이트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곧 증명하게 될 네 번째 불연속의 시대라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과 호모 사피엔스는 어떤 역학 관계인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인가. 아니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동반자인가.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비트닉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닉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마지막 종족이자 비트시대의 첫 종족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기계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최초의 인류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4. 비티아(Bitia) - 비트닉스로 구성된 네트국가

비트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비트닉스들은 네트 속에서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밖에 없지요. 일종의 포털이나 페이스북 등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그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개인감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가는 개인의 움직임 등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정책을 입안하려 할겁니다.

비트닉스는 현실의 국가가 과연 내게 무슨 의미인지 자각하고, 이러한 인식 변화를 거친 비트닉스와 국가권력이 심각하게 충돌할 것입니다. 비트닉스의 인식 변화는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상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고 이것이 비티아(Bitia)입니다. ‘비티아’는 비트로 만들어진 토피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비티아의 등장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비트닉스의 요청에 의해 가상공간에서 비트공동체, 비티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혁명입니다.

역사상 모든 혁명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빛처럼 일어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스트코로나는 현생인류의 삶을 바꾸는 비트문명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비트닉스의 세상은 공룡처럼 자라날 것이고 현실의 국가를 능가하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Ⅲ. 결론

본고는 비트시대와 비트문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였고, 비트라이프, 비트닉스, 비티아의 등장과 그 진화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은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하고 또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지요. 국가이든 개인이든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지나쳐 갈 것이고 결국 우리는 낙오자가 되어 플라톤의 동굴에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논의는 곧 미래로의 여행입니다.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옵니다. 수동적 대응보다 선제적으로 설계된 미래를 찾아내야 할 겁니다.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 전망과 과제 -2'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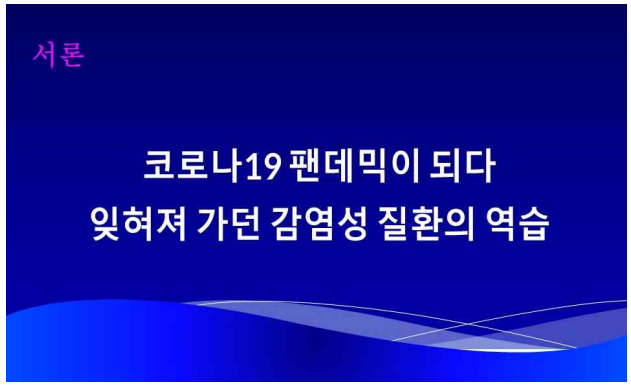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양성평등

손숙미 한선재단 선진여성위원회 위원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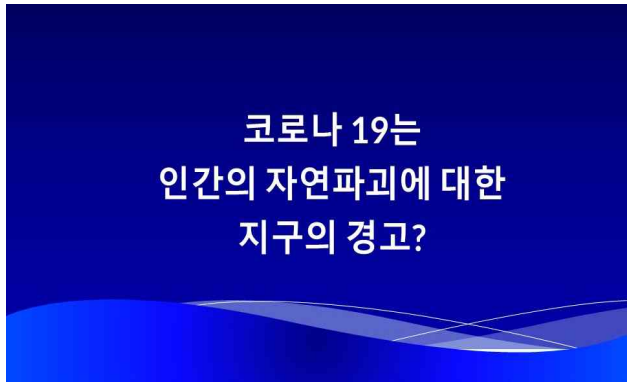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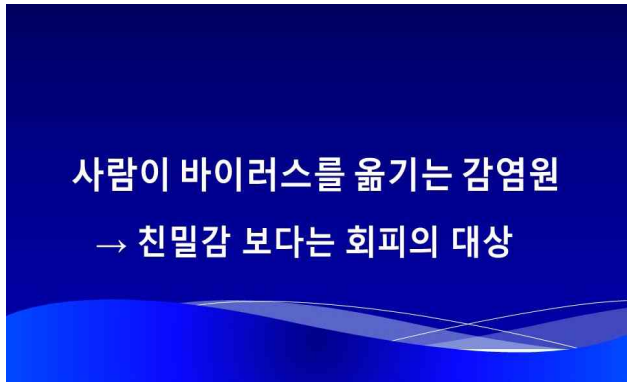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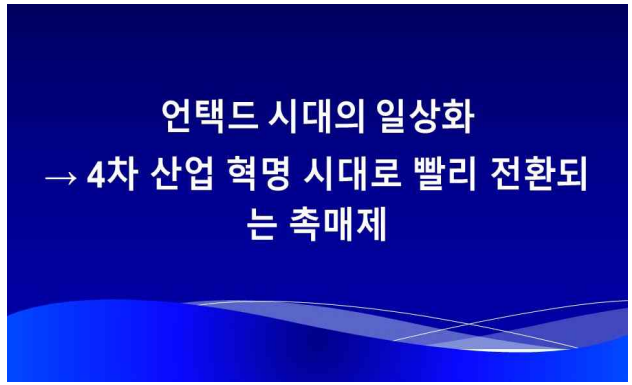
4.



5.



6.



7.

Ⅰ. 팬데믹이 미친 변화

1. 취업 불평등 심화

- 고액 연봉자 : 재택근무 가능
- 택배 종사자, 마트 계산원, 청소부등
  → 현장근무
- 보건 분야 종사자 : 현장근무

8.

Ⅰ. 팬데믹이 미친 변화

1. 취업 불평등 심화

- 방과후 교실,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 무급휴직 혹은 해고
- 식당과 호텔 종사자 : 무급 휴직 혹은 해고

9.

Ⅰ. 팬데믹이 미친 변화

2. 여성 취업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10.

Ⅰ. 팬데믹이 미친 변화

3. 가족 시스템이 옛날로 회귀

- 학교 어린이집, 일부 학원이 문을 닫음
  → 집에서 아이를 돌볼사람 필요
  → 전통적 사고에 의해 여성이 담당↑
-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이라고 하는 전통적 사회규범으로 회귀?

11.

Ⅰ. 팬데믹이 미친 변화

4. 가족 내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악화

- 학교에서의 공교육,
  민간서비스에 위탁했던 양육, 돌봄이
  → 가정으로 들어옴
- 여성은 가사노동과 더불어 공교육,
  보육까지 책임



13.

I. 팬데믹이 미친 변화

5. 가족내 여성의 책임증가와 우울감

- 가정의 사적영역과 공교육, 공보육이 혼재된 상태
- 여성의 24시간 노동
- 여성의 사적공간, 시간 부족
-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주기 변화

14.

I. 팬데믹이 미친 변화

6. 가정내 자녀들의 방임

- 부모들의 재택근무가 어려운 가정은 자녀들이 방치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들의 방임이 심화

15.

I. 팬데믹이 미친 변화

7. 자녀교육의 양극화

- 부모의 재택이 가능한 가정
- 부모가 부재하거나 조손가정의 경우 디지털 지식 부족

16.

I. 팬데믹이 미친 변화

8. 가정폭력의 증가 혹은 감소?

- 가족간의 접촉이 증가되면서 프랑스 가정폭력 32% 증가
  영국 북아일랜드 20% 증가
- 우리나라 (1월 20일 - 4월 1일)
  가정폭력 신고 4.9% 감소

17.



18.

I. 팬데믹이 미친 변화

9. 고도화된 디지털 성범죄 증가

- 직접적인 성매매, 성폭력
- N번방 사건 :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웹 사용
- 몸캠 증가

19.

II. 장기적 전망과 대책

1. 전자기기 공급과 디지털교육

- 저소득층 가정에 태블릿 PC 공급
- 부모의 부재나 조손가정의 경우 디지털 교육 도우미 파견

20.

II. 장기적 전망과 대책

2.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신 자유주의 페미니즘 강화

- 탄력근무가 일상화되면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
- 비대면 상대에 대한 높은 공감력을 가진 여성이 유리
  → 여성의 업무능력 향상
- 자기실현 욕구 증가,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증가

21.

II. 장기적 전망과 대책

3. 장기적으로 양성 불평등 감소

-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 통신판매등을 선택
  → 노동자들의 유연성 증가
- 여성, 남성의 탄력근무 증가
- 남성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과 육아에 할애

22.



23.

II. 장기적 전망과 대책

4. 가족 내 양성평등 재정립

- 집에서의 공적인 영역(교육, 업무)과 사적인 영역(식사, 여가 시간등) 의 시간적, 공간적 구분
-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invisible) 보수도 없는(unpaid) 집안일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개선
- 가족간의 대화를 통한 가사노동 줄이기와 공평한 일의 분배

24.

결론

1. 코로나19로 단기적으로 여성의 실업 증가, 양성평등 악화를 야기
2. 장기적으로는 탄력 근무제, 재택근무제가 일상화 되면서 양성평등 개선
3.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시급

2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 전망과 과제 -3'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 복지>

사회갈등 구조 해소와 자립자조의 복지시스템 구축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선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14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 19, 복지개혁의 기회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오면서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갈등,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문제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질병과 감염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건강한 사회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건강한 사회와 투명한 사회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빈곤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복지개혁의 전환기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 19 이전의 사회적 갈등과 복지비용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실상 갈등과 양극화 속에서 많은 복지비용의 낭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회갈등비용이 발생했고,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로 고용 창출이나 생산

기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비용은 결과적으로 급속한 복지비 증가와 이에 따른 큰 폭의 재정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기업과 개인과 정부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으로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노조와 기업은 적대적인 노사관계로 갈등을 보였고 기업과 정부는 규제개혁과 세금 등 복지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개인과 정부 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노후보장을, 복지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이기적이고 기득권적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구조 하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도, 복지를 개선시킬 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 5030 선두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절실

기업과 노동자간에 과거의 적대적 앙금을 완전히 거둬낸 대타협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탈규제로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합니다. 또한 가계와 정부 간에는 사회복지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최후의 복지 보장이라는 관점을 서로 이해하고 자조자립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사회적이고 동시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기업과 사회는 창조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누구든지 빈곤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모든 기업과 국민들에게 보장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결과적으로 갈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킴으로서 각 개인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나은 창조적인 생산 활동에 정부 예산을 활용할 때에 시장경제가 안고 있던 양극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적 대타협 K-모델의 성공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5030국가들(5천만 인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국가)을 선도하게 할 것입니다. 5030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곱 개 국가 밖에 없습니다. 5030국가의 진입을 넘어서 그들을 선도할 복지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통일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